

家族婦人 教育에

[權友] (1929년 5월 창간호)

(註: 權友社가 同誌의 創刊 特輯으로 請託한
'權友運動에 對한 各方面 人士의 期待'라는
題目的 앙케이트에 대한 答文)

현재 조선에 있어서는 모든 것에 질서적으로 그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며 어느 것을 나중에 하여야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많은 지장은 각방면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니 그 실현에 있어 매우 곤란한 것도 사실이다. 동서양을 물론하고 일어나는 운동은 각기 그 나라와 경우를 따라서 방침이 다를 것이니 조선에 있어 여성운동도 환경이 특수하니 만큼 그 방침도 다를 줄 안다.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하여야겠지만 무엇보다도 근우회의 사명은 일반 아매한 구 가정 여성으로 하여금 세상의 일을 깨닫기에 필요한 교양사업을 주로 하기를 바라며 또는 그리 해야 되겠다. 여기에는 먼저 선각여성의 책임과 실현이 충실하여 근우회가 조선여성의 이익을 도모함에 표현기관이 되기를 바란다.